믿음은 실력, 행위는 성적표

(마태복음 7:15~29)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실력, 행위는 성적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실력, 행위는 성적표'
믿음과 행위가 구원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는 언제나 문제로 걸려있습니다. 행위는 수술로 맹장을 잘라내듯이 잘라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공로사상에 질려버린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믿음과 행위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마르틴 루터의 생각은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행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로 언급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행위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사지백체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와 구원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듯이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음은 마치 성령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에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언제나 성령님과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될 때에는 하나님과 성령님도 일체되심 안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급될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되심 안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앞서 등장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본문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행위에서 불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구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산상수훈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 뜻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도 지키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시니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을 한 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실력, 행위는 성적표"라고 하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모순되게 느껴진다면 믿음과 행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이 믿음이란 곧 예수님의 실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실력에 대한 성적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증명 받은 학생들은 서울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부인하시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실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예수님의 영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이제껏 그 어떤 사람 중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성적표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 우편까지 이르셨던 예수님의 실력을 내 실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공짜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공짜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아무런 비용이나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 실력을 갖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치르신 엄청난 비용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곧 믿음으로 예수님의 실력을 내 실력으로 삼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실력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실력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실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실력을 내 실력으로 삼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실력과 관계되어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은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력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서울대 입구의 수위실에 가서 “나는 서울대에 얼마든지 들어갈 실력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실력을 증명하는 기준은 성적표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이 있다면 합격점이 기록된 성적표 또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실력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력이 있어야만 천국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것으로 만든 예수님의 실력이 정말로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실력을 가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수능시험의 성적표와 같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내 실력으로 삼았다는 성적표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실력을 갖추었다면 행위라는 성적표는 따라오게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실력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지켜지는 행위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공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합격점의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산상수훈이 지켜진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나의 실력으로 삼았다는 증거이며 천국 합격점의 커트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의 실력을 내 실력으로 삼아서 산상수훈과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앎의 의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앎이란 구약성경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로써 단순히 지식적 앎이 아닌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체험적 앎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앎이 마귀의 앎과 다른 점은 연합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연합해서 알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지만 결코 예수님과 연합하지는 않습니다. 종교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다' 즉 체험적 앎이란 부부가 한 몸이 되면서 서로에 대해 알듯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알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전혀 알

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한 적이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모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듯이 예수님과 연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상태가 유지될 때에만 연합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골인하는 남녀의 연애관계에서 같이 있든 없든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결혼이라는 연합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지라도 마음이 돈에 흘러가고 자녀의 형통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강물이 흐르듯이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흘러가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실질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계속 흘려보냄으로써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도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의 조건은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흘러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나를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도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강요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요구인 산상수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거침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으로 마음을 흘려보내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십자가에 마음을 흘려보낼 것을 전제로 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내 오

장육부 사지백체에 보태진 또 하나의 장기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산상수훈이 지켜질 때에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죽은 자로써의 의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시면서 거침없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성적표로써의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곧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고 산상수훈은 지켜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의 실력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마음 드리기를 지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십자가에 드려지는 동안 세상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이 믿음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아의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로써의 자아의식은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존재하는 한 부모로써의 자아의식이 지속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드림이 지속되는 동안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은 지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실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때에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속박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표를 받을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라는 성적표에 깜짝 놀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한 것은 율법의 강조가 아닌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또한 엄청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예수님의 실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강물이 흐르듯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서울대학 합격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합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력으로 천국에 합격하는 삶은 공자도 못했고 이순신 장군도 못했고 세종대왕도 못했고 칭기즈칸도 못한 일이고 스티브 잡스도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강물이 흐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과 똑 닮은 성령님이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적표를 받으실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한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하신 예수님의 실력으로 모든 행위가 나타나게 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